

010/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4차 산업혁명 - 평가원 수능 국어 '경제' 지문의 호시(嚆矢)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p>1 경제 '원리'</p> <p>통화정책 - 통화정책 수단 - 공개시장운영 - 중앙은행 ↔ 민간은행 중앙은행 채권 매수 ⇒ 이자율↓ ⇒ 소비/투자↑ ⇒ 경기↑ ⇒ 물가↑</p> <p>중앙은행 채권 매도 ⇒ 이자율↑ ⇒ 소비/투자↓ ⇒ 경기↓ ⇒ 물가↓</p>	<p style="color: orange;">전형적인 최근 기출 구조와 흐름을 보여줍니다.</p> <p style="color: orange;">1. 첫단락-두번째 단락 끝 부분 주제세팅 2. 이후 흐름 연결</p> <p>1단락 통화정책과 경기변동 이자율↑ = 물가↓ 이자율↓ = 물가↑</p> <p>2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S.E 선제성 C 정책외부시차</p> <p>3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 신뢰 - 준칙주의</p> <p>4단락 - 재량주의</p>
<p>2 주제흐름 - 선제성</p> <p>통화정책의 요건 ① 선제성 ② 정책 신뢰성 C 정책외부시차 E.S 선제성(단어 뜻. 먼저 함)</p>	
<p>3 주제흐름 - 정책신뢰성</p> <p>② 정책 신뢰성 : 준칙주의 준칙주의 vs 재량주의 역시 단어 뜻 그대로. 준칙 지켜 vs 재량껏 결과 좋은 나쁜 원칙 지켜</p>	
<p>4</p> <p>② 정책 신뢰성 : 재량주의 재량. 결과만 좋으면 신뢰.</p>	

- 1단락 통화정책-통화정책수단
2단락 통화정책요건-선제성/신뢰성
3단락 신뢰성-준칙주의
4단락 신뢰성-재량주의
- 흐름으로 구조는 매우 단순하며 깔끔합니다.
- 하지만 현 수능의 경제지문의 포석이 되는 기준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1. 구조적
 2. 내용적
- 특징을 정확히 익혀 앞으로의 경제학 지문에 연결해야 합니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과급된다.

1단락에

채권매매에 따른 '공개시장운영'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국가에 따라서,

정부의 지시를 통해 중앙은행이 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앙은행이 민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정부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지문에는 중앙은행이 진행하고.

이 내용은 92페이지에 있는데, 뒤에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지는 2단락은 1단락의 내용을 그대로, 통화 정책으로 이어지며, 그 요건을 다룹니다.

선제성과 정책신뢰성.

사실 별 내용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정책이 바로 효과가 있진 않을 것이고

그것을 '시차'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정책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

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신뢰성 역시 상식+하향식 바탕으로 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준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신뢰를 준다는 주장과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결과가 좋아야 신뢰를 한다는 재량주의 둘의 견해 차이. 끝.

다시 한 번 1단락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경기 부양	중앙은행(FRB)	채권 ← ⇒ 달러	정부
	시중은행	달러 ← ⇒ 채권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입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구입으로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또한, 정부가 채권 대신 돈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많고, 대출 여력이 생기고, 대출 줘야 수익이 나고, 대출 경쟁이 붙고, 결국 금리도 낮아짐 금리 낮으니 대출 더 쉬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활성화 / 구매력 증가 ⇒ 물가 상승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소득은 자본가에 집중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 결국, 사회적 불만/문제 발생 과거 이를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1) 채권 가격이 높아짐 = 채권 가치가 높아짐 = 채권에 이자를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진정시켜 물가를 낮추려 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진정	중앙은행(FRB)	달러 ← ⇒ 채권	정부
	시중은행	채권 ← ⇒ 달러	
정부가 시장의 채권 매도 결과 시장의 통화량 ↓ 채권 가격 ↓ 금리 ↑ (이 내용은 추후 EBS수특)			
	시중은행	C 금리 ↑ ⇒ E 신용/대출 ↓	가계/기업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정부의 채권 판매으로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또한, 정부가 돈 대신 채권을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에는 돈이 없고, 대출 여력이 없고, 대출 수요는 많고, 결국, 금리 높아짐 금리 높으니 대출 더 어려움			
	가계/기업	C 소비/투자 ↓ ⇒ E 수요/공급 ↓ ⇒ 경기 안정 / 구매력 감소 ⇒ 물가 하락/진정	
자본주의 : 자본이 생산수단 소유 생산 ↓ ⇒ 자본가가 어려움/유지 물가 ↓ ⇒ 비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유지 기존에 발생한 사회적 불만/문제 해소 방지 = 혁명 / 폭동 / 대공황등의 문제 해소. 하지만 자본가가 수익을 얻기 힘들다 = 자본생산성이 낮아짐 = 사회에 창출하는 부가 줄어들 = 이것이 심해지면 = 디플레이 = 부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음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경기 부양으로 갑니다.

22. 밑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요건이 2가지 유형!

주제 잡으면 역시!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단락 소주제!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단락 소주제 + 구조

많이 줄 필요 없음 = 금리 낮아짐
2) 통화량이 늘었고, 그래서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생산 설비는 수요를 따라오기 힘들. 따라서,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됨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1단락 소주제!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4단락 소주제!

이제는 익숙한 주제 + 구조 유형입니다

-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3가지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문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병의 제안	2%	2% 유지	2% 유지
		물가1%↓	물가1%↓
원리 적용	금리1.5%↑	금리1.5%↑	

정리하면

1. 아래 내용 바탕 물가 낮추기 위해 이자를 올려야하고
2. 지문 근거, 금리를 1.5% 상승 - 물가 1% 하락
3. 1개분기 선제적
4. 1개분기 유지
5. 따라서 1/1에 금리 1.5%p 선제적으로 올리면
6. 4/1부터 물가는 1% 내리고, 그 효과는 1개 분기
7. 따라서, 4/1에도 금리 1.5%p 올리는 것 1개 분기 추가 유지
8. 결국 7/1에도 물가 1%내린 상태 1개 분기 유지

1단락
통화정책과 경기변동
이자율↑ = 물가↓
이자율↓ = 물가↑

2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S.E 선제성
C 정책외부시차

3단락
통화정책의 요건 : 신뢰
- 준칙주의

4단락
- 재량주의

이런 원리 적용의 사고

정보 활용에 익숙해져야합니다.

더 이상 일치.단어 유무 확인 문제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한 주제 + 구조 유형입니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5번 선지 끝.

2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답 1번 끝.

3~4단락 소주제.

준칙주의 : 무슨 일이 있어도 준칙 지켜서 신뢰 줘라

재량주의 : 재량있게 해서 좋은 결과로 신뢰 줘라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과급되었다.
- ②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풀이 시간: 풀이 때 이해도:

수업 바탕 지문 및 문제 이해도: 학습일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출 연계 배경지식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 둘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④**과급된다.

어휘력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이야 정책 효과가 **⑥**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③**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④**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⑥**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제+전개방식

22.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유형분류**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단락 소주제**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단락 구조**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1단락 소주제**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단락 소주제**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 1. 1단락 원리,인과
- 2. 선제성 1개 분기
- 3. 유지

주제

24.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